coupang newsroom

[보도자료] 쿠팡이츠서비스, 한국도로교통공단과 배달파트너 교통안전 강화 업무협약 체결

2026. 9. 4.

강동진 쿠팡이츠서비스 상무(오른쪽)와 이영재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본부장이 4일 강원도 원주시 소재 한국도로교통공단 본부에서 배달파트너 교통안전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있다

- **교통안전교육·콘텐츠 개발·안전문화 확산 등 협력 확대**
- **지난해부터 전국 8개 지역서 안전점검·교통안전교육 함께 진행**

2026. 09. 04. 서울 - 쿠팡이츠서비스(CES)가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손잡고 배달파트너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 지원에 나선다.

쿠팡이츠서비스는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한국도로교통공단 본부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과 '배달종사자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4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배달파트너 교통안전교육 및 분석 △교통안전 콘텐츠 개발 △배달파트너 안전역량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배달파트너 안전 관련 전반 협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동진 쿠팡이츠서비스 상무(오른쪽)와 이영재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본부장이 4일 강원도 원주시 소재 한국도로교통공단 본부에서 배달파트너 교통안전 업무협약을 기념하고 있다

쿠팡이츠서비스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부터 배달파트너의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협력 활동을 이어왔다.

양 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시, 인천시, 청주시, 경기도 이천시, 경상남도 창원시, 전라북도 전주시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15차례 무상 안전점검 행사를 진행하며 현장 교통안전교육을 병행했다.

또한 올해 4월부터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CES 교통안전교육의 날'로 지정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수가 전국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배달파트너 대상 교통안전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륜차 주행실습교육 등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지속 협력할 예정이다.

쿠팡이츠서비스 관계자는 "한국도로교통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배달 현장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